“현대불교로 불교 쉽게 배워요”

‘종립학교 신문보내기’ 캠페인, 매주 28개 학교에 1000여 부 배포

‘종립학교 법보시운동’을 통해 학급에 배달된 현대불교신문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동국대학교 부속 여자중학교 불교반 연화회 학생들. 학생들은 “현대불교를 통해 불교에 관해 많이 배우게 된다”고 말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매주 교실로 배달되는 현대불교신문으로 부처님과 만나요.”

현대불교신문은 올해 1월부터 조계종 포교원과 함께 어린이 · 청소년 불자를 키우기 위한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본사가 전국 28개 초 · 중 · 고 종립학교에 배포하는 950부의 신문은, 학생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주 모든 학급에 전달된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지면은 12~13면.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논술 길잡이가 될 ‘우리 말 꼭꼭 씹어 먹기’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연재를 비롯해 학생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상담코너 ‘우리들 생각’, ‘만화로 떠나는 철학여행’ 등 다양한 기사가 가득하다.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접하다 보니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의 ‘불교’는 어느새 생활 속 친근한 종교로 다가온다. 한 장의 현대불교신문이 교실 마다 자리한 든든한 포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원로 스님들과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 독지가는 익명으로 매달 1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으며, 대구지역 모 사찰의 신행모임 회장을 역임한 보살님은 남은 회비 200만원을 종립학교에 신문보내기 캠페인 후원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성수 스님(황대선원 조실)과 자승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현성 스님(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등 원로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주지 원담) 수덕사(주지 옹산) 선운사(주지 법만) 고심정사(주지 원택) 등의 사찰에서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 보덕학회(회장 윤용숙) 등의 단체에서도 새싹 불자 키우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 · 청소년 불자를 키우기 위한 수많은 불자들의 원력과 자비심이 있기에,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학생들은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새 마음 새 뜻으로 2학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 불자라면 누구나 수희(隨喜) 동참해야 할 일이다. 매주 사찰과 불자들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법음(法音)이 더 널리 퍼져 나가게 하기 위해 독자들의 후원을 받아 교도소와 군법당, 복지단체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法布施)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79곳의 시설과 단체에 본지 독자들의 법보시 손길이 이어졌다. 법보시 동참자들의 명단과 발송처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매주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2007년 8월 현재

구분	발송처	시설수	발송부수
경찰	경찰서	170	174
교화기관	감별소	3	9
	교도소	47	225
	교정청	2	6
	구치소, 감호소	12	62
	소년원	12	36
군부대	군법당	336	401
	군병원	9	11
복지단체	기업복지재단	6	6
	노인복지	24	25
	복지관련대학	33	33
	복지단체	51	52
	복지협의회	5	5
	부랑인복지	3	3
	아동복지	23	23
	의료기관	16	69
	장애인복지	10	10
	지역복지	19	19
	청소년복지	10	10
합계		791	1,179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309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0여만 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을 통해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1구좌 이상 전화로 신청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 1팀
(02)2004-8211~2(직통), (02)2004-8200(대표), 팩스(02)737-0697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주)재훈개발 강경득 강대덕행 강덕순 강덕순 강도분 강명옥 강명자 강미경 강미숙(용무회) 강봉스님 강수옥 강순희 강영내 강영신 강욱섭 강인자 강점숙 강철암 강춘계 강황진 강후원 개목사 경연혜 계미영 故)김정희 고경옥 고광욱 고동분 고심정사 고은영 고재숙 고재흥 고준영 고종애 고필선 고헌사공덕화 공정심 공평근 곽동희 곽명순 곽성순 곽우진 곽은아 곽중경 곽춘자 관음종 구길자 구명보 구수연 구자삼 구필회 국인호 권경숙 권구현 권두상 권명아 권문성 권미경 권민성 권수오 권순남 권영숙 권오응 금강심 김갑순 김강산 김강웅 김건용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옥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계숙 김광수 김규순 김규정 김금옥 김금천 김기석 김기성 김기준 김기춘 김기홍 김나령 김남규 김남오 김다래 김덕임 김동윤 김동자 김동찬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윤 김문자 김미래 김미리 김미연 김미진 김민정 김병석 김병일 김병희 김복선 김복영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호 김상훈 김생중 김석자 김선녀 김선아 김선영 김선옥 김선화 김성수 김성숙 김성순 김성자 김성철 김수옥 김수정 김숙자 김숙희 김순금 김순남 김순련 김순복 김순자 김순희 김승재 김승호 김승훈 김신숙 김안숙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수 김영분 김영선 김영성 김영수 김영숙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 김영출 김영팔 김영한 김옥남 김옥선 김옥순 김옥정 김용섭 김용숙 김용순 김용재 김용호 김원용 김유학 김윤관 김윤자 김윤정 김은기 김은식 김의식 김인태 김인혜 김재방 김재철 김재희 김정규 김정덕 김정렬 김정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애 김정옥 김정환 김정희 김종보 김종영 김주수 김주영 김주현 김준형 김중철 김지나 김지숙 김지영 김지윤 김지혜 김진근 김진선 김진영 김채란 김철수 김춘난 김춘자 김춘희 김태수 김태윤 김태형 김택곤 김학근 김학수 김한구 김향숙 김현국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현화 김형운 김형태 김혜경 김화남 김화일 김회철 김효민 김효래 김효례 김효상 김희숙 김희순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숙희 나순옥 남국석 남선자 남여원 남유선 남종진 남주희 남현우 노성일 노성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윤택 노창석 노훈정 논술문화단영숙 대성사 대전충북지사 대한불교진흥원 덕장스님 도미라 도순련 도이환 도태순 등욱스님 류동연 류송우 류정오 류지숙 류지연 류지형 류해창 마정혜 마진호 맹남균 명성행 묘연보살 무공스님 무량사 무량심 문경숙 문두상 문상철 문선희 문수홍 문숙희 문순조 문영희 문임숙 문정희 민경애 민미자 민성곤 민정원 민지오 민진옥 박경국 박경수 박경애 박경옥 박경자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 박금주 박금봉 박기숙 박기임 박남순 박말이야 박맹순 박명희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기 박봉사 박봉순 박봉영 박부용 박상기 박상돈 박상섭 박상현 박상호 박상환 박선애 박성수 박성준 박수경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승목 박신영 박양주 박연숙 박연신 박영권 박영석 박영숙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용무 박용욱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선 박인희 박장미 박재석 박재윤 박정상 박정숙 박정순 박정옥 박정자 박정화 박정희 박종임 박종화 박종희 박주찬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찬 박천혜 박철홍 박청길 박춘미 박춘봉 박태 박태균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숙 박현순 박현주 박형숙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혜선 박화재 박희순 방명극 방명섭 방미애 방순자 방장수 방재순 배건석 배광준 배기수 배득진 배민화 배보석 배순자 배영희 배정임 배춘자 배태열 배현옥 배홍수 백광현 백규현 백영묵 백종희 백혜원 법륜스님 법왕사 법천스님 변영희 변융태 보광사 보덕학회 보훈법당 봉선사 봉현주 부천지역법보시(한마음선원) 불교여성개발원 불암사 삼천사 상현스님 서경자 서덕교 서미옥 서병학 서영주 서영혜 서영호 서예숙 서예준 서울월곡청소년 서원석 서윤이 서의숙 서일석 서재영 서정우 서주희 서춘건 서청자 서혜빈 서희숙 석영수 선덕스님 선운사 선원사 성경순 성민자 성불사주지스님 성불하세요 성수스님 성운스님 성원스님 성재영 세진암 손대상 손문철 손수광 손순옥 손영실 손은주 송길순 송동호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재운 송정구 송종화 송필재 송희경 수덕사 신기세 신남선 신덕근 신동호 신미향 신비스님 신상균 신성환 신수영 신수호 신수회 신영찬 신용례 신윤기 신응교 신재덕 신재철 신정규 신정순 신정희 신조현 신주호 신진임 신진희 신창순 신현순 신혜경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숙희 심영애 심원식 심현보 안광기 안국선원 안명헌 안병윤 안병태 안선환 안영옥 안은현 안은희 안인옥 안정은 안정포교원 양세욱 양순조 양연숙 양연희 양영모 양영순 양익수 양재호 양준원 양준원 양현주 양흥용 엄재욱 엄태영 엄흥수 여상배 여연주 연주암 염흥수 영산재보존회 오경환 오광자 오금식 오미덕 오병덕 오상숙 오승훈 오신재 오원중 오재영 오정애 오정자 오지은 오창순 오학규 오현규 오현희 옥영식 용석천 우동렬 우림사 우병선 우지예 우진궁 우춘자 운공스님 원각스님 원택스님 원판영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명순 유보향 유영미 유영신 유정오 유종옥 유준호 유지연 유지호 유진옥 유효봉 육성희 윤기석 윤기원 윤기홍 윤대수 윤병덕 윤병창 윤본숙 윤상현 윤석완 윤선영 윤성원 윤순화 윤여창 윤여형 윤영숙 윤오인 윤월스님 윤정연 윤정일 윤제학 윤종숙 윤지웅 윤지웅 윤지은 윤춘매 윤춘희 윤현숙 윤희원 율곡사 이강만 이강희 이건우 이건중 이경남 이경섭 이경숙 이경애 이경영 이경자 이경주 이광수 이광훈 이구자 이귀순 이규달 이근기 이근혜 이기수 이기승 이기오 이기탁 이길순 이낙영 이단식 이대섭 이대성 이동구 이동일 이동주 이동진 이두영 이명규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무각 이문성 이미경 이미나 이미정 이미화 이병태 이보편 이복동 이복성 이복희 이산궁 이상숙 이상옥 이상은 이상태 이석순 이선례 이성수 이성용 이성표 이수빈 이수양 이숙경 이순덕 이순복 이순자 이순화 이순희 이승남 이승윤 이승훈 이신정 이씨 이양희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경 이영득 이영숙 이영순 이영자 이영진 이영환 이영희 이예은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용원 이용재 이용진 이우순 이우진 이우철 이우환 이운화 이원상 이원애 이원칠 이원호 이유순 이윤선 이은숙 이익수 이재숙 이점오 이정남 이정선 이정숙 이정순 이정안 이정임 이정임 이정조 이정헌 이정희 이종례 이종섭 이종성 이종숙 이종옥 이종의 이종천 이종한 이준구 이준섭 이준재 이중기 이지은 이지영 이지현 이진선 이진순 이진순 이찬수 이찬호 이찬호 이창호 이천봉 이철헌 이청 이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태인 이태희 이필희 이한희 이해 이해송 이향경 이향림 이향순 이형신 이형호 이혜숙 이화자 이훈노 이희숙 이희영 이희정 일진성 임경언 임경옥 임경희 임광기 임도경스님 임명옥 임선희 임성중 임성환 임영애 임옥빈 임용식 임용호 임정숙 임종구 임종덕 임종덕 임지향 임춘희 임형준 장기환 장만수 장명호 장문규 장미숙 장미순 장성윤 장양선 장영남 장영철 장재원 장정장정자 장정희 장해기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경희 전계영 전명국 전병수 전수남 전유신 전은희 정갑일 정갑임 정경남 정경연 정광우 정구순 정규열 정근희 정금란 정금자 정만수 정명자 정미련 정상만 정성남 정수사 정수자 정영수 정영숙 정영신 정영희 정옥녀 정운경 정윤채 정은경 정응균 정인순 정인실 정인자 정정애 정차효 정창남 정창래 정필순 정하석 정회철 제순희 조경숙 조계사 조계희 조공옥조근영 조남희 조동섭 조명숙 조미란 조민규 조성준 조세은 조양순 조영석 조옥순 조원희 조재규 조재현 조정해 조정희 조진식 조진한 조창희 조춘희 조현수 조현주 조현정 조혜숙 조효섭 주경숙 주미숙 주정숙 주정옥 주정희 주희숙 지경애 지명구 지민정 지원 지혜선 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진정애 차동호 차민영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보살 천영기 천진옥 청무스님 최갑식 최경락 최금철 최병조 최병준 최복림 최복섬 최복순 최상철 최순옥 최양순 최연주 최영봉 최영숙 최옥자 최옥주 최원주 최윤희 최은자 최인자 최재순 최정기 최정희 최종열 최종원 최준성 최준영 최진태 최진태 최타숙 최태영 최태준 최학우 최혜원 최효주 최희숙 탁순례 태순덕 태응스님 표경희 하근수 하미경 하미희 하승희 하재웅 하재한 하정숙 하정희 하태선 한경자 한기영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본원외15지원 한상열 한세진 한숙희 한영순 한윤경 한은섭 한은영 한인식 한재희 한정우 한정희 한철화 한화윤 행원문화재단 허경순 허두련 허미옥 허복영 허성국 허재승 허정화 허추자 허태영 허태환 현남순 현대불교만세 현대불교화이팅 현미숙 현타스님 현혜선 호소희 호진스님 홍경욱 홍경화 홍순아 홍애순 홍월자 홍학란 황경숙 황경순 황경욱 황금영 황논철 황말연 황성미 황순수 황순심 황용숙 황인순 황인형 황제선 황태숙 황현숙 외 익명다수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국제불교대학원 남 · 여 <승려(행자) 모집>

<3개월 무료지도>

기본과정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범음,범패,작법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불교학 개론	소승과 대승불교, 근본불교, 화엄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정토사항, 선사상, 밀교사상, 유식사상, 선불교, 인교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 불교학을 알아야 법문(설법)을 잘한다.

◆ 모집인원 : 30명

◆ 원서접수 : 2007년 9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2007년 9월 3일 오전 9시

◆ 제출서류 : • 입학원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 1통
• 반명함판사진 –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전사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단 숙식 거주자만 접수함(한달숙박비 50만원)(지도강의료는 무료임)

◆ 문 의 본대학 사무국 : 전 화 031)676-6207, 031)676-0908
팩 스 031)675-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영평사내 국제불교대학연구원 건물)

공익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교육원 부설 국제불교대학원